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외 축구장에 인공잔디를 깔아놓으니 좋다고, 야외용구장과 야외 배구장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체육시설들을 훌륭하게 꾸려놓으니 지휘부의 환경이 더욱 멋있어졌다고 기뻐하시였다.

종합체육관의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실내수영장은 물론 실내 배구 및 통구장과 한증칸, 리발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흠잡을데가 없이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건설한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은 앞으로 모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단들에게도 건설하게 될 시설들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이 영화와 최신군사과학기술성과자료를 볼수 있는 영화관도 멋쟁이로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부에 새로 건설한 실내사격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사격관을 잘 건설했다고 치하하시고 지휘성원들의 사격모습도 보아주시면서 사격관운영을 정상화하여 모든 지휘성원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항공군사업의 시작이 좋다고, 2015년을 항공군의 전성기를 펼치는 해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대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메어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서 비행사들이 육체훈련도 하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정말 멋있게 잘 지었다

고 거듭 만족하시면서 무엇이 부족한것이 없는가를 헤아려보시다가 부대장병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과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결만 보고셔도 둘러보고싶은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조종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 기술준비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 기질성형장, 야외재배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평양에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정책을 실천으로 반들어가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얻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적극 바치한 건설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구

내에 새로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새로 만든 기계제품을 보아주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성능높은 기계제품을 훌륭히 개발하는데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의 침실, 식당, 열람실을 돌아보시면서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합숙관리운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보기공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유구한 민족사도 위인을 모셔야 빛난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기나긴 세월 조선민족은 고유하고 우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창조하였고 후대에 귀중한 역사자료들과 유산들을 남겼다.

그러나 민족사의 갈피를 번지면 역사의 진실이 외곡되거나 날조되어 단일민족의 역사가 심히 호러진 과거사의 폐지도 있다.

한때 외곡말살되어온 민족의 유구한 역사는 절세위인들에 의해 오히려 해명될 수 있었으며 세월과 더불어 빛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지난 시기의 사실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행동방향을 바로세워 혁명을 더 잘하자는데 있으며 사람들 속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주제 확립은 역사연구의 생명이라고 하시었다.

없었던 경로를 되찾는 것도 애국이지만 없었던 역사, 외곡된 역사를 되찾고 바로잡는 것이 애국중의 가장 큰 애국임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고 계신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심오한 철학의 논리로 민족사를 바로잡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시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첫 통일 국가의 형성은 그 나라 역사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점을 이룬다. 따라서 그것을 옹기 밝히는 것은 해당 나라 역사의 기본 흐름을 해명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49(1960)년 10월에 내놓으신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라는 로작에서 《신라통일론》의 부당성을 밝히고 고려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 국가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시었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고려의 건국과 국토통일, 역사적 지위 등을 고구려와의 계승관계 속에서 새롭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고려의 건국과 국토의 통일은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

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구석기시대 문제, 고대국가형성 문제, 초기 봉건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한 문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문제 등 우리 민족사를 바로잡는데서 의문시되고 있던 제반 문제들이 과학적 논리로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었었던 것이다.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실, 인물들을 역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정확히 분석 평가하여야 사람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고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 진실과 거짓, 애국과 매국울 똑바로 가려보게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사를 주제적립장에 기초하여 정립하여야 한다는 민족사연구의 근본원칙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역사의 풍요속에서 잘못 평가되었던 6가야 문제, 반거란전쟁사 문제, 중세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문제, 독도에 관한 문제, 옛날 역사책들의 사료적 가치와 그 제한성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 분석하시고 바로잡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의 비범한 명도에 의해 민족사연구에서 올바른 방법론적 지침이 마련될 수 있었고 단편적인 역사자료들까지도 모두 민족사발전의 근원흐름에 부응될 수 있었으며 오래동안 외곡되었던 중요한 역사사실들과 사건, 역사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재정립되어 민족사의 합법적 발전로정을 과학적으로 고증하는 귀중한 자료로 될 수 있었다.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랑천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제 91(2002)년 6월

강산을 울리고 천하를 움직인다

새해를 맞으며 하신 경에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전인이 산악처럼 일떠서는 것으로 화답해나셨다. 평양과 평안남도, 함경남도, 량강도를 비롯한 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신년사에 호응하는 중군대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했다. 령도자의 애국의 호소는 로씨야, 중국, 일본, 기르吉斯스탄 등 이역만리에도 빛날치고 있다. 최은복, 한길수, 박 알레리 등 해외동포들도 앞을 다투어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하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데 지성을 다할 결심들을 표명하시었다.

경에 하신 원수님의 신년사는 온 한해 조국이 나아가길 진로가 명시된 설계도이며 승리와 성파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리정표이다.

절세의 애국자의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뜻과 위대한 구상, 담대한 결심과 의지가 백백치고 있으며 민족의 요구와 리의, 인민의 리상과 지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목표달성의 방향을 그어주는 라침판이며 조항조항은 한해의 출발선에서 결승선의 마감까지 분분초초 어떻게 뛰고 뛰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

는 시간표와도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산을 진감케 하고 온 민족을 애국의 숨결로 뒤흔들며 하는 신년사의 감화력과 건인력은 자자구구에 비겨있는 경에 하신 원수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풍모에 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도 그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는 비상한 정치경련과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온갖 짓대 대한 과업과 그 방도를 밝힌 신년사에서 사람들은 이해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다.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항구가 풍기도록 수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대 대해서며 질풍을 소비품생산, 어린이식료품생산으로 인민들의 의식생활에서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할 대 대해서 그리고 고산과 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동이 큰 대건설을 올해에 끝내도록 할 대 대해서 시간표를 따라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생산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신심에 넘쳐 있다.

조국해방 일흔들, 민족분열 일흔들이 되는 올해에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도록 할 대 대해서 구호가 격려의 심금을 달구고 삼천리강도를 울리고 있다. 경에 하신 원수님의

결심이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묘한 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불패성을 떨치도록 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위인상이 올해 신년사에 그대로 어려 있다.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할 대 대한 과업과 그 방도를 밝힌 신년사에서 사람들은 이해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다.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항구가 풍기도록 수산업 발전시키도록 할 대 대해서며 질풍을 소비품생산, 어린이식료품생산으로 인민들의 의식생활에서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할 대 대해서 그리고 고산과 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동이 큰 대건설을 올해에 끝내도록 할 대 대해서 시간표를 따라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생산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신심에 넘쳐 있다.

조국해방 일흔들, 민족분열 일흔들이 되는 올해에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도록 할 대 대해서 구호가 격려의 심금을 달구고 삼천리강도를 울리고 있다. 경에 하신 원수님의

신년사에 고무된 미국, 일본, 단마르크 등 해외에 사는 김숙, 리준무, 광동, 립민식, 리동제 등도 모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민족분열사를 기어올려 끝장낼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하 하면서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격양된 심정을 터놓았다.

신년사는 애국에 살고 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민족성원들이 한해의 날과 달을 어떻게 맞고보내야 하는가를 심오한 뜻과 명철한 철리로 가르치는 강령적 지침이고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그로서 사람들은 시정연설과도 같은 신년사의 자자구구를 마음속에 조아박듯 열독하는 것이 온 나라는 신년사가 지퍼준 애국 열풍으로 끓는 것이다. 시적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새해의 첫기슭에서 절세위인의 애국의 용지와 철의 신념과 의지, 비범한 예지와 완강한 공격정신, 불굴의 기상이 빛나는 신년사에 호응하여 일떠선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올해의 휘황한 앞날을 전망한다.

본사기자 리 설

시련을 헤친 민족수호의 장정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경에 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송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말 삼가 드리지었다.

그이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인사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과 드림없는 의지를 느꼈고 애국헌신의 선군정상으로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지난 정월초 하루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박출초소를 시찰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되는 날이다.

민족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1995년 새해아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어나가자는 내용의 서한을 인민들에게 보내신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영광을 지켜선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었다. 눈넙힌 진지에 이르시어 새해를 맞는 군인들

을 축하하신 그이께서는 이어 그들의 훈련을 보시었다. 빈계같은 기동과 용맹스럽고 날렵한 동작으로 실천과도 같은 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한 군인들의 훈련을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리고서는 병실을 비롯한 중대의 곳곳을 돌아보시었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다박출초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시찰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사수호하려는 령장의 정치적결단에 따른 선군정치의 선군정치의 전면적 실현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날 군대가 약하면 적대세력의 공세를 짓부실 수 없고 하루아침에 녹아날 수 있다. 인민군대가 강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적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민군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다박출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은 그후 갑나무중대, 길영조영의 칼바람길과 초도의 바다길, 철령과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전초와 진지에 이르는 천만장정으로 이어졌다. 대소한의 강구리와 삼복의 무더위, 폭우를 가림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영광을 지켜선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었다. 눈넙힌 진지에 이르시어 새해를 맞는 군인들

을 축하하신 그이께서는 이어 그들의 훈련을 보시었다. 빈계같은 기동과 용맹스럽고 날렵한 동작으로 실천과도 같은 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한 군인들의 훈련을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리고서는 병실을 비롯한 중대의 곳곳을 돌아보시었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다박출초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시찰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사수호하려는 령장의 정치적결단에 따른 선군정치의 선군정치의 전면적 실현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날 군대가 약하면 적대세력의 공세를 짓부실 수 없고 하루아침에 녹아날 수 있다. 인민군대가 강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적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민군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다박출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은 그후 갑나무중대, 길영조영의 칼바람길과 초도의 바다길, 철령과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전초와 진지에 이르는 천만장정으로 이어졌다. 대소한의 강구리와 삼복의 무더위, 폭우를 가림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영광을 지켜선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었다. 눈넙힌 진지에 이르시어 새해를 맞는 군인들

본사기자 주일봉

진정한 애국, 애민의 령도자 재미동포가 칭송

경에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와 인민사랑의 정치를 칭송하여 재미동포 김숙이 2일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새해신년사에 접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에서 위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민족분열사를 기어올려 끝장내려는 강인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었다고 밝혔었다.

부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체제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주

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 넘어뜨리려 하는 정치를 떨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다고 밝혔다.

참으로 북의 정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정치가 펼쳐나가는 북을 향해 《인민》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시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북의 정치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같은 남조선당국이 북의 진정한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모든 리

익이 인민대중에게 차례지도록 하는 정치를 떨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다고 밝혔다.

참으로 북의 정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정치가 펼쳐나가는 북을 향해 《인민》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시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북의 정치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같은 남조선당국이 북의 진정한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모든 리

익이 인민대중에게 차례지도록 하는 정치를 떨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다고 밝혔다.

참으로 북의 정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정치가 펼쳐나가는 북을 향해 《인민》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시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북의 정치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같은 남조선당국이 북의 진정한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모든 리

본사기자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생활수준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단위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해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중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농산과 축산, 수산은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해 주시었다.

본사기자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 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김정은

민족이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유구한 세월 단일한 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는 가슴아픈 비극이 70년이 되어오도록 지속되고있다.

남편과 생리별을 당한 녀인은 백발을 띠고도 남편의 소식을 모르며 꽃나이를 넘겨서도 이룬 손녀는 할아버지의 모습조차 알 길이 없다.

배양과 서진거레, 교역으로 번갈았던 도로는 무성한 잡초에 묻혀있으며 끊어진 철길에는 아름다디나무가 자라났고 철교와 송전선에는 눈이 두껍게 앉았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장구한 력사가 이 땅에 펼쳐놓은 비극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조선이외에 인공적분별이 지속되고있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세계가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별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별의 비극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겨레는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거

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조래될것은 전정뿐이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공공연히 《북선년사의 진정성》이니 뭐니 하며 상대방의 진정을 우롱하고 미국의 천만부당한 《조강대북추가제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추어주는가 하면 전연 일대에서 인강스레기들을 반공화국배라살포로 또다시 내보내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

북과 남은 민족의 아픈 상처를 가시게 위해 손에 손을 맞잡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동족간의 세기를 이어오는 불미스러운 대결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하나로 합쳐야 할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대결하며 살아온지도 70년에 이르렀고있다. 대결의 한해한해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민족의 대단합은 통일을 안아오는 원동력이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보다는 분별의 지속적인 고통을 삶의 순간순간 깨부르며 감수하며 살아온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동성이 훨씬 더 크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이러한 민족적 특성에 비해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대결의 사상적기초이다.

이러한 민족적감정과 단일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민족이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분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 차이이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로서 참담하게 살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사회제도에 하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있건,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릉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조선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북과 남이 이미 마련된 통일전장, 통일대강들에 밝혀진대로 뜻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통일의 새로운 장은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선인, 민족대단결의 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합, 대단결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간다면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준엄한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 조국은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라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련방제 방식은 통일위업실현의 유일한 길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 것처럼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평정대한 통일방도이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사상과 주의 차이가 서로 다른 각이한 정당들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립 정부를 구성하고있으며 지역적분방이나 통합정책을 추진하고있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반민권의 유구한 세월 한나라의 공졸을 이으며 한강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겨레가 민족적공동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북과 남의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침에하게 대치되어있으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련방제 통일이 아닌 《제도통일》을 추구하는것은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남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으로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만을 추구하면서 민족의 통일명명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보수당이 발광적으로 벌려놓은

비밀한 《인권》소동, 《종북》소동, 반공화국배라살포소동, 외세와 야합된 북침전쟁도 발소동 등 동족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는 무분별한 대결소동, 전쟁행위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제도통일》추구, 체제대결이 초래할것은 대결과 전쟁밖에 없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제도통일》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일시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전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올려세우어야 할것이다.

정확준

천해나가는것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이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7번 변하도록 세대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어도 분렬의 장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민족분렬의 불행하고 통일이 더해만 가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분렬의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겨레가 이 시각 예라게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통일이다.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사상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하지 아니하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중시의 릉장을 펼쳐서야 한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렬과 전쟁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이며 최우명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중요요구이기도 하다. 그 어떤 리념이나 제도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다.

민족이 있고야 조국도 있는것이다.

요당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반민권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꺼리낌없이 나오고있다.

이 이루어지지 못할 망상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북남관계이다.

조국해방 70돛과 민족분렬 7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온 겨레가 바라는 소망은 어떻게 하나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해방 70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우리 손으로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자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원의 글

적금지과 희망찬 포부를 심어주는 강령적인 선언이라고 격찬하였다.

우리 민족은 70년세월을 분렬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자주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통일은 통일도 없다고 하면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당국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민족적립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 민족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구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

적금지와 희망찬 포부를 심어주는 강령적인 선언이라고 격찬하였다.

우리 민족은 70년세월을 분렬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자주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통일은 통일도 없다고 하면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당국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민족적립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 민족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구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

적금지와 희망찬 포부를 심어주는 강령적인 선언이라고 격찬하였다.

우리 민족은 70년세월을 분렬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자주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통일은 통일도 없다고 하면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당국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민족적립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 민족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구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

적금지와 희망찬 포부를 심어주는 강령적인 선언이라고 격찬하였다.

우리 민족은 70년세월을 분렬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자주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통일은 통일도 없다고 하면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당국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민족적립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 민족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구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본부가 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 등은 남북관계개선에 방해로 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하

었다.

현 《정견》이 미국에 워 매일것이 아니라 북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비리성적인 《종북》물의를 걷어치우고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새해선언사를 지지하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원 리준우가 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실었다.

글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선언사에서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정이 담긴 인사를 보내주셨다고 감사하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동포들에게 크나큰 민족적합력을 주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력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절세위인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올해의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민족이 높은 통일지기를 실현적인 북남관계개선, 통일운동의 전진으로 이어나가자면 북남쌍방이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실현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하지 않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온 북남관계사를 돌이켜보면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결 못한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해 건설하고 발전시킨 개성공업지구 하나만 놓고 보아도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는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남조선에서 《정견》이 교체된

자위적책역제력을 펼치는것을 레삼사로 해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 《제제결의》 조작소동에 돌격대로 나서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유엔 결의》 조작에 앞장서는 반민

갈등이 더 격화되고 악화된 북남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게 된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신뢰》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들어왔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뢰를 원한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고 힐뜰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조선정계에서는 공공연히 《북선년사

하고도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고 대답하라고 한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침묵히 새겨보고 결단을 바로하여야 한다. 무의미하고 겨레에게 해만 주는 낡은 대결자세에서 벗어나 동족과 손잡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이 화해하는 게 죄인가

남조선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뒤이어 《종북》소동이 더욱 성행하는 가운데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가 10일 《강제출국》되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이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가하면 시민단체 《젊은 벗》이 《북에 추종하는 리적단체》로 매도되어 그 대표에게 징역형이 들췄다는 등 지금 남북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과소적 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살벌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에서도, 남에서도 대화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 지금, 분열 70년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말자고 누구누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있는 현실점에서 남북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탄압소동은 겨레의 깊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강제출국》당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언도받은 이들이 한 《종북》행위란 자기가 본 북의 현실을 그대로 이

야기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것뿐이다. 이것이 과연 죄가 될수 있는가. 더우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에 대해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고있는 통일인사와 정당,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의심하게 하고있다.

사실상 이러한 탄압소동은 동족대결과 과소가 판무하던 이전 《유신》독재시기를 그대로 반복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이 이런것마저 《보안법》위반이라면 북에 대해서는 비난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것이 없으며 6.15북남공동선언정신에 대해 정면도전을 선언한셈이라고 지적한것은 옳당한 개소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70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면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대동강물이 맑다고 해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해소될수 없다.

지금 겨레는 북남대결과 민족분열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끝장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안아올 립장이라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체제대결소동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

력에 대한 과소적탄압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들어와 더욱더 양양된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련옥



부산에서 남조선당국에 항의하는 시위투쟁 진행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라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지금처럼 군사적긴장이 계속 격화되어서는 겨레가 마음놓고 살수 없으며 이 땅에 언제 또다시 군사적충돌과 전쟁이 초래될지 알수 없다.

세계는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민족만이 외세가 강요하는 대결과 전쟁놀음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그래서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평화보장문제를 중요하게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평화방안과 긴장완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계속 도전하며 년 초부터 전쟁준비의 화약배를 계속 퍼우고있다.

지난 13일과 14일 조선동해에서 그 누구의 《침투》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한 연합해상훈련을 벌인 것도 그 하나이다.

이 훈련에 동원된 미국의 이지스함에는 《SM-3》란 도요격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첨단유도무기들이 탑재되어있다. 훈련은 명백히 공화국의 주요대상을 물에 대한 공격과 기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제타격훈련이었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의 3군단, 6군단, 11기계화보병사단을 비롯한 각종 부대들이 새해병두부터 일제히 화력시범훈련, 후속에서의 생존 및 극복훈련, 야외기동훈련, 포병사격훈련 등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아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외세와의 북침합동전쟁연습을 그만둘때 대한 공화국의 정당한 평화제의를 미국과의 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연합훈련은 계속될것》이라고 도전적으로 대답하면서 올해에도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속임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행동들은 북남관계 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책동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는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연습과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

되풀이되는《유신》독재시기의 조작사건

남조선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7일 《유신정권》이 조작하였던 모략사건인 인민혁명당건원위원회사건이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 진보정당해산으로 되풀이 되었다고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1974년 《유신》독재 《정권》이 인척형당사건과 함께 《배후에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인민혁명당건원위원회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혔다.

1975년 4월 재판부의 사형판결 18시간만에 8명의 사건관계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인민혁명당건원위원회사건과 그와 연계된 인척형당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해산사건과 같은 점에서 맞닿아있고 하면서 같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서희

남조선당국에 관계개선의지가 없다고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3일 사실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국을 비난하였다.

신문은 현 집권자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밝힌 북남관계에 대한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북에 의사를 전달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로만

《대화》를 운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집권자와 《정부》가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이버테러와 9.11 사건

새해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행동을 중지하고 정책전환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도리어 호전적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왔다.

지난해에 발생한 《소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 당한 전대미문의 해킹사건을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켜 《사이버테러》로 묘사하면서 《사이버전쟁》을 고아내는것도 그 하나이다.

하와이섬에서 하던 오마하는 공화국이 제한 미국의 정책전환요구를 관통하는 세계 여론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라고 《대통령행정명령》을 선포하였다.

미련방수사국과 국가보안국은 해킹사건을 《보안형식》로 우겨대고있으며 미전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민청학련을 탄압한 점과 현 집권자가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 견제한 통합진보당을 탄압한 점, 민청학련을 탄압하기 위해 인척형당건원위원회사건을 조작한 점과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내란음모사건과 《지하혁명조직》을 조작한 점,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 핵심리유라는 점 등을 놓고보면 그렇다.

인척형당건원위원회사건이후 《유신》독재는 더욱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였고 국민은 말만하니 함부로 할수 없는 암흑속에서 살아야 했다.

사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사죄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통합진보당해산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리유다.

본사기자

남조선진보단체 성원들 통성투쟁에 돌입

남조선의 민가형합심수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진보단체 성원들이 8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당국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데 이어 진보세력에 대한 압수색을 비롯한 탄압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정당과피에 이어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닦치는대로 잡아가두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남북관계파란과 동족대결정책이 《종북》몰이의 근간으로 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부정협정으로 당선된 현 《정권》이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고 친미

서대매국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유신》독재를 철저히 닮았다고 단죄하였다.

집권자가 《유신》독재로서의 복귀를 시도하고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유신》독재반대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불씨가 되

며 현 《정권》의 공안동치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통성에 들어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유신》독재부활을 획책하는 현 《정권》을 끝장내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성원들은 통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본사기자



한 재미동포가 흘린 눈물을 보며

얼마전 미국에 사는 동료 신은미가 남조선에서 《강제출국》당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도 래줄을 묻은 땅이라고 찾았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릴것인가. 이것은 그 하나만이 말하는

고통이 아니라 동강남 조선반도, 갈라진 이 겨레가 당하는 아픔이고 고통이다.

1. 재미동포아줌마가 말하는 북과 남

신은미는 최근 여러차례 북을 방문하고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동료사회에 널리 알려진 여성이다.

그의 책은 2013년 남조선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도서로 선정하기도 하였고 통일부는 그와 한 인터뷰를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영상으로 띄우기도 하였다. 또 2013년에도 그렇지만 지난해 4월 남조선전역의 20개 지역을 돌면서 강연을 할만큼 신은미의 이야기는 남조선인들이 《귀엽고, 이쁘고, 세련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같은 아줌마수다》라고 할 정도로 대인기였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와 다를가 하는 호기심을 갖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것은 어찌보면 그들은 우리와 그렇게 같을수 있을가 하는 동질감이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할수 없는 우리의 민족적정서를 공유하고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우리 일행은 모란봉공원에 닿았다. 공원안은 북소리, 장구소리, 노래소리로 켈렷켈렷... 몇사람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가무의 세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말이지 《지독하

게》 똑같다. DNA검사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같은 민족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대체로 순수하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 서로 눈물이 글썽이는데, 아름답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 《북은 상상했던것보다는 잘살고있다.》, 《남북의 동포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함께 써내려가길 간절히 바라고있다.》

참신하고 아기자기한 신은미의



신은미 동포

방북이야기는 편협하고 주관적인 도로 의곡된 서방과 남조선 언론의 보도로 하여 북에 대해 그릇되고 이지리진 단면과 암담한 표상만을 가지고있던 남조선인들에게 있어 폐부에 와닿는 생신함을 주었다.

《베트남 나라》, 《인권이 탄압되는 곳》이라고 북을 비난하던 모략선전의 허위성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게 된것이다.

신은미는 책이나 강연내용에 그 어떤 편파적감정을 섞지 않았다.

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하며 북도 내 겨레, 남도 내 겨레,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하나가 될수 있고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의 소망

과 민족의 념원을 담았을뿐이다. 하지만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는 신은미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고소하였고 보수당국은 《보안법》위반으로 《강제출국》시켰다.

남쪽땅을 떠나면서 신은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이야. 나 혼자 짝사랑했단다.》

그에게 있어서 심장속에 있는 북과 남은 다같은 조국이지만 북에는 불안을 안고 왔다가 웃으며 떠났고 남에는 웃으며 왔다가 울면서 떠나야만 했던 신은미의 모습은 분열의 아픔으로 모두의 심장을 허뼛다.

2. 《표현의 자유》의 광면성

신은미에 대한 강제처분은 남조선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심각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한다.

인권의 일차적인 권리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제한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표현상의 자유일뿐이다.

신은미와 《탈북자》들의 경우가 그 비근한 사례로 된다.

올해 1월 8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은미는 이렇게 말했다.

《2011년 남침이 색다른 여행을 해보자고 해서 북으로 갔다. 집안이 보수적이어서 어쩌때부터 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곳은 얼

굴이 빨갛고 호전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평양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재잘거리며 뛰어다니고 출근길에 지하철은 붐비고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다른 나라처럼 교회에서 레베도 드리는 그런 곳이었다. ... 내가 책과 콘서트에서 강조하고싶었던것은 북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대화상대라는것이다.》

반면 《탈북자》들이 날리는 뼈라에는 전부 북의 체제와 제도, 인권상을 험토고 자기들처럼 《탈북

하는 내용이 들어있을뿐이다. 한편은 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뿐이고 다른편은 현실을 외곡하고 없는 사실도 꾸며내어 여론화한것이다.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두말할것없이 객관적립장에서 본 해외동포의 말과 글일것이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수십년간 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있었던 신은미는 불과2년동안에 이것이 진짜 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책으로 쓴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종북》딱지를 받았다.

그러나 북에서 태어나 나라의 덕으로 돈 한푼도 벌이지 않고 배우고 사회에서 일정하게 생활한 《탈북자》들은 무엇이 모자라서인지 부모처자를 배반한것도 부족해 북에 대해 갖은 비방과 증상을 조작해내는것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있다.

당국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리적표현》, 《종북》이 되고 저들의 집권 《안보》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자유》로 쳐주는데 남조선의 《표현의 자유》이다.

그 《표현의 자유》아래 무수한 당파적 짓밟힌 인권사태들은 너무도 많다.

지난해 12월 1일 남조선의 《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각계 성원들이 밝힌데 의하면 인터넷에 오른 게시물중 단지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 삭제된것은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0만 64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징역에 이르

3. 눈물없는 통일세상을 안아오자

미국땅에 내려서는 신은미의 열매감, 무조건적인 불신, 고질화 굳어진 눈물이 흘렀다.

마중나온 친지들에게 그는 울면서 말했다.

《남과 북 모두를 사랑한다.》, 《남과 북이 모두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신은미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다. 갈라진 민족이 겪고있는 고통의 하소연이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호소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대결과 민족분열의 70년, 이제는 그 비극을 새장배야 한다.

새해부터 북에서는 북남관계의 대변력을 가져오자는 강산을 들끓고 울리는 폭풍같은 선언이 울려나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종북》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주적》으로 표현한 북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합동전쟁연습이 계속 강행된다면 과연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겠는가.

수십년동안 굳어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대화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민족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고 대결과 전쟁밖에 차레질것이다.

한 재미동포가 《종북》으로 물린것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

기까지 실형이 가해지는판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광면성에서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함께 동족을 모욕하고 동족의 체제를 모독하며 《제도통일》을 추구하는 불신과 대결의 속임을 들여다볼수 있다.

대결, 무조건적인 불신, 고질화 된 《제도통일》, 체제대결추구가 초래한 비극이다.

신은미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조선과 해외에서 행하는 《종북》마녀사냥에 쫓기고있다.

《표현의 자유》아래 아직도 뼈라살포가 진행되고 《안보》의 구실로 이어지는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정수대와 혈맥을 잇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자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닫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는 북의 구호를 보면 통일이 보인다.

70년동안 바라고바라던 통일을 이루어 신은미를 비롯한 우리 겨레의 눈에서 더는 민족분열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재미동포 신은미가 눈물로 말하는 통일이다.

아마 그때부터 신은미는 《재미동포아줌마 통일조국을 가다》라는 글을 웃으면서 쓰게 될것이다.

재중동포 권민혁

재중동포 권민혁



II 인기있는 겨울철체육종목-스키 II

마시령스키장에서 겨울철 체육관광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아름다운 설경을 펼친 마시령스키장은 요즘 스키를 타고 초, 중, 고급스키주로 달리는 남녀로스들로 매일 같이 흥성이고 있다. 스키타기는 스케트, 썰매와 함께 가장 인기있는 겨울철체육종목의 하나이다. 겨울철체육문화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스키의 연원은

대단히 깊다. 력사학자들은 인류가 스키를 사용한 때를 지금으로부터 약 4,000~5,000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 살던 고대인들은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판대기 같은 것을 리용하여 눈우에서 쉽게 걸을수 있는 보행기구를 창안하였으며 그것을 사냥과 군사활동에도 적용하였다.

북방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요소로 하나로 되고 있던 스키는 차츰 경기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오랜 역사를 흘러오던 스키운동이 정식 체육종목으로 발전한것은 1850년 이후부터이다. 1879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스키조약경기대회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883년과 1888년에

스웨리에와 노르웨이의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그린랜드를 횡단한것은 세계적인 과목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속에서 스키경기에 대한 류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유럽나라들에서 성행하던 스키는 그후 알프스산줄기를 낀 나라들로 급속히 전파되어 큰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호를 라

고 1924년에 국제스키연맹(FIS)이 창설되었으며 스키체육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1924년에 진행된 제1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저리스크경기과 스키사격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스키종목은 그후 계속 늘어났다.

본사기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여러 부문에 도입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기여의 나래를 달아주고 있다.

날어 빠른 시일에 세계적수준을 돌파할 목표에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교육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갔다. 이 나날 대학의 연구진단은 어느 한 단위의 영상자료 전송과 업무통합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체계를 훌륭히 개발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 체육종목에 따른 전용 편집프로그램들도 손색없이

개발하였다. 어느 한 식료공장에 나간 교원, 연구자들은 국부망구성, 생산설비들의 CNC화, 생산공정감시체계, 생산경

이밖에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통합생산관리체계, 종로별에 따르는 경기분석체계 등 대학의 연구집단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람구의 알찬 열매들을 안아

왔다.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편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현실에서 은을 내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프로그램기술개발에 힘을

개발도

영관리정보화체계를 개발도

왔다.

이공이서 말했다.

사화 최영장군의 벼루 (4)

글정의선, 그림 김윤일

《시중대감님께 문경윤이 문안드리오이다.》 하고는 무릎을 꿇고앉았다. 《그대 특사 경조와 죽 마고우라면서?》 하고 정몽주가 집잡게 물었다. 《그렇소이다. 이렇게 대감님을 만나뵙는걸 영광으로 생각하오이다.》 문경윤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었다. 《어서 편히 앉게. 나도 경조의 친구를 알게 되어 기쁘이.》 《황감하오이다.》 《그대가 최영장군의 벼루에 대해 알고싶어한다면서?》 《소인의 외람된 생각을 탓하지 않으시겠는지 두렵소이다.》 《벼루문제에 대해서라면 마음놓게. 하지만 송헌(리성계의 호)대감께장들을 조심해야 하네.》 《명심하겠소이다.》 《그대 최영장군의 벼루에 대해 뭘 알고싶은가?》 《그 벼루의 생김새라고 할가 그 벼루가 다른 일반 벼루와 다른점을 알고싶소이다.》 《음, 최영장군의 벼루를 찾아서 깨어버렸다면서?》 《예, 최영장군이 비명에 가신지 며칠후 그 벼루를 찾는다고 소동이 벌어졌었소이다.》 문경윤은 그때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하고나서 《그

런데 깨어버린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 같지 않소이다. 제가 듣기에는 최영장군이 애용하시던 벼루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학과 호랑이를 새겨었다는데 깨어 버린 벼루에는 퉁퉁입힌것이 있었다고 하오이다.》 《허허, 최영장군의 벼루에 퉁퉁입을 했더냐?》 정몽주는 크게 웃고나서 《퉁퉁입을 한 벼루라면 최영장군이 애용하던 벼루가 아닐세. 최영장군은 퉁이나 봉황새 그리고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같은 환상적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네. 그 어른은 부처도 믿지 않았단대, 내 최영장군의 벼루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정몽주는 이렇게 허두를 때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326년 즉 최영장군의 생일 열두이 되는 날에 장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일 선물로 벼루를 만들어주었다. 장군의 아버지 최원직공은 사헌부 규정 벼술을 했는데 친성이 강직하고 대바르며 불의를 미워하고 청렴 결백하였다. 그는 임금의 잘못을 간하며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사헌부의 관리로서 자기 직책을 훌륭히 감당하였다. 장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벼루에 자기의 뜻과 기대를 상징하여 소나무와 대

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을, 대나무에는 호랑이를 그려넣어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벼루머리에 는 글자를 새겨넣을수 있도록 공백을 두었다. 최영장군의 아버지는 벼루를 어린 최영에게 주면서 앞으로 이 벼루의 공백에 네가 좌우명으로 삼을만 한 글을 새겨넣으라고 하였다. 벼루를 받은 최영은 아버지에 게 세번 절하고 또 벼루에도 두번이나 절을 하여 그 뜻을 어기지 않을것을 맹세하였다. 최영장군이 열여섯살 되는 해인 1332년에 아버지가 별세하였다. 아버지는 립종할 때 최영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금덩어리를 잡석조각같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최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일 벼루에다 아버지의 유언을 새겨넣고 이를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벼루의 뒤면에는 나라에 충성 다한 조상들의 관직과 이름을 새겨넣었다. 최영장군은 자기가 애용하는 벼루를 한갓 하나의 문방구로 보지 않고 한생을 함께 할 스승으로, 친근한 벗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정몽주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였다. 《내가 언제인가 장군에게 간적이 있었네. 그때 내

가 장군의 벼루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벼루에 장군의 기상이 어여웠다고 말했더니 장군이 말하기를 《나의 기상이 어런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념원이 담겨져있다 고 봐야 옳을거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대길 때 이 벼루가 나에게 속삭여주는게 아니겠소.》 라고 말하면서 《나쁜 놈들이 삼강의 유모 장지를 사측하여 자기를 모해할 때 마경수나 리인일 등이 전횡을 부리며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랑민들을 잡아다 자기 집 노비로 만드는 악행을 정벌할 결심을 가지게 한것도 이 벼루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것이라요. 아니, 벼루가 아니라 벼루뒤에 새겨넣은 나의 조상들이 나를 고무추동했다고 봐야 옳을거요.》 라고 하였다. 《정몽주가 말을 마치자 문경윤이가 물었다. 《대감님, 최영장군의 조상들 가운데 장군처럼 출중하신 분이 많았소이까?》 이 물음에 정몽주는 머리를 끄덕

루 뒤면에 조상들의 이름을 새겨넣은거라네. 이런 소중한 벼루이기에 장군에게 없 허실던 그 로인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 벼루를 지키었기 아니겠나. 벼루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말은 필경 로인이 꾸며낸 말일걸세.》 정몽주의 이 말에 문경윤이가 《시중대감님, 소인도 그런 생각이 드오이다. 헌데 이처럼 삼엄한 경계속에서 어떻게 그 벼루를 감출수 있었겠소이까. 파수병들이 장



소문난 민족음식전문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엄동설한에 땀을 철철 흘리며 전골을 먹으니 참 별맛이다.》, 《삼복철에는 평양랭면이 제격이지만 겨울에는 평양전골이 천하진미이다.》... 평양고려호텔앞에 위치한 창광종합식당산하 승리식당은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전골을 특색있게 잘 만드는 것으로 평판이 자자하다. 거기에는 이곳 식당 럽월선책임자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여있다. 18년째 이곳 식당에서 일 해오는 그는 손꼽히는 전골 요리전문가이다. 그가 잘게 썬 고기에 남새, 두부, 버섯 등 음식감들을 넣고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전골로리의 독특한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 해한다. 처음 그가 이곳 식당에 배치되었을 때만 해도 전골 요리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전골의 유래에 대해 전해 들게 되었다. 먼 옛날 고구려군사들이 외적과 싸울 때 전립(지금의 칠갑보같은 곳)에 음식을 모아넣고 끓여 먹는데서 유래되었다는 전골,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은 고구려군사들이 외적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

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선조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깃든 전골을 으뜸가는 민족음식으로 되게 하리라 마음속 결심을 다지었다. 그때부터 그는 잠만 있으면 인민대학습당을 찾아가 요리세계에 파문하기도 하고 전골의 독특한 맛과 향취를 더욱 돋구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 나날 그는 민간에서 전해내려오던 전골요리법을 체계화하고 전골요리추진들에 특색있게 만든 전골로리를 내놓아 여러차례 높은 평가와 기술상을 받았다. 얼마 전 조선로리협회에서는 전골로리를 조선명료리로 등록하였다. 민족의 자랑인 전골로리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요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이 그를 찾아오곤 한다. 그때마다 럽월선책임자는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실있게 배워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 하고있다. 언제인가 함경북도 회령시에 전골음식점이 새로 생겼을 때에도 그 먼 길을 찾아가 제일처럼 도와 준 그였다. 전골로리에 특기를 가진 그는 남다른 문학적소질을 지니고 여러련의 기사들을 창작발표한 재능있는 문학애호가이기도 하다. 몇해전 그

가 창작한 기사 《평양전골 제일일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서어서 둘러앉게 평양 전골 들어보세 볼 지퍼라 활활 지퍼 평양 전골 들어보세 산에 들에 나는 특산 모두 넣고 끓이니 민족의 향취 넘쳐서 좋 다네 ... 맛과 영양가가 뛰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골. 민족음식의 전통을 빛내이기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노력이 있어 전골의 고유한 향취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짙어지고있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홍범식



묘청의 란은 개경랑반들과 서경랑반사이의 권력 싸움인 동시에 사대세력파 반사대세력사이의 심각한 대결이었다. 12세기에 들어와서도 사대외교를 계속하고있던 김부식, 김부식의 개경집권랑반들의 정책은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서경출신랑반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묘청 등 서경출신랑반들은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며 왕을 황제라고 부를것을 주장하면서 이미 《지기(땅의 기운)》가 쇠한 개경에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서경의 립원역 자리에는 새 왕궁인 대화궁이 건설되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한 사업이 왕과 적지 않은 봉건관료들의 지지밑에 추진되여갔다. 그러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개경출신관료들의 완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묘청일파는 1135년 1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위국》을 선포하고 천개라는 년호를 제정 하였으며 《천견총의군》이

라는 군대를 조직하여 서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김부식을 총지휘자로 하는 개경군은 서경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서경의 군민은 1 730여간의 성을 새로 쌓고 항전을 벌였다. 1136년 2월 서경은 수적으로 우세한 개경군에 의하여 함락되었으며 반란군은 진압되었다. 개경총지배들은 항전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얼굴에 《서경역적》 또는 《서경》이라는 글자를 새겨 귀양을 보내고 탄압하였으며 서경랑반들을 차별하고 박해하였다. 묘청의 란은 지배계급내부의 정권쟁탈전이였으나 사대주의를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의의를 가지며 12세기 농민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은 것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여성들은 바둑, 남성들은 장기

최근에 바둑을 두는 여성들이 많아지고있다. 직업적인 바둑선수들을 보아도 높은 단수를 소유한 여성들이 많은데 반대로 장기에서는 남자들이 어깨를 견줄만한 여성들이 없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남녀간의 성격상차이에 기인된다. 바둑이 부드러운 여성적인 오락이라면 장기는 보다 파격적인 남성적인 오락이때문이다. 바둑과 장기의 차이를 어

는 한 바둑명수는 자기의 저서 《바둑의 저수가 울며 아쉬워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흥미있게 서술하였다. 《한수의 가치를 비교해볼 때 바둑은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절정에 도달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서서히 하락성을 갖는다. 한편 장기는 두면 둘수록 수가 늘어 마지막에 양이 잡히는 순간에는 절정에 달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바둑은 남성적, 장기는 남성들의 패감곡선이다.》 본사기자

군대에 있던 사람들의 일기일들을 살폈다고 하오이다. 정몽주가 《사람이 하자고 하면 못하는게 없다네. 분명 그 로인이 벼루를 감추었을 거네.》 라고 하였다. 문경윤이 《시중대감님, 어리석은 소인의 생각엔 최영장군의 그 벼루야말로 장군에게서 대대손손 귀중히 간직하여야 할 가보일뿐 아니라 국보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생각이 드오이다.》 《자네가 옳게 말했다.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가 쓰는 벼루에 자기의 좌우명과 포부를 새겨놓고 그것을 늘 보면서 자기를 다잡는다면 자기자신을 수양하는데도 좋고 언제나 큰 뜻을 지니고있게 되니 참담게 살아갈수 있을 거네. 최영장군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만 한 인물이지.》 정몽주가 이렇게 말하고나서 숭엄한 표정을 지으며 더 말하지 않았다. 이윽고 문경윤이가 침묵을 깨뜨리었다. 《대감님, 보잘것없는 소인의 외람되기도 또 죄가 될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대감님께 한가지 묻자고 하오이다.》 《어서 말하게. 내 그대의 말을 탓하지 않으리.》 《대감님께서도 최영장군의 심판관으로 참석하였는데 최영장군을 역신으로 판결하시고 끝내 그를 처형하였소이다. 암매한 소인으로서는 그 죄명이나 처형이 지나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오이다.》